

남들을 드높이는 자가 되는 법

오늘 영적인 꽃밭을 보며, 즉 끊임없는 장미인 자녀들의 집회를 보며, 밥다다는 그 자녀들 각자의 특질을 보고 있다. 세 종류의 특질이 있다. 하나는 끊임없이 자신의 영성의 단계에 안정해 있는 자들의 특질인데, 그들은 끊임없이 피어 있다. 둘째 종류는 자신의 영성의 단계에 따라 끊임없이 피어 있지는 못하지만, 믿음의 화신이기 때문에 그들의 아름다움은 매우 훌륭하다. 셋째 종류는 아버지께 대한 사랑과 관계를 바탕으로 절반쯤 피어 있고 사랑과 관계의 향기가 넘치는 자들의 특질이다. 세 종류의 장미들이 있는 꽃 정원을 보며, 밥다다는 끊임없이 그 향기를 취한다. 이제 너희 자신을 보아라: 나는 누구인가? 넘버원이 되는데 아직도 부족한 것이 무엇이든 그 차이를 메워서 가득 채워져라. 왜냐하면 완전한 아버지의 자녀들은 또한 아버지처럼 가득 차고 완전해져야 하기 때문이다. 각 자녀의 목표는 가득 채워지고 완전해지는 것이고, 따라서 그 목표를 위한 모든 자격 요건을 갖추고서 완성되어라. 이를 위해 가져야 할 특별한 다르나에 관해서는 너희에게 이미 말해주었다: 끊임없이 브라마-차리가 되라는 것, 즉 끊임없이 순결하고 또한 끊임없이 남들을 드높이라는 것이다.

남들을 드높이는 자가 되는 것의 의미는 쉬우면서도 매우 깊다:

1. 남들을 드높이는 자는 끊임없이 다른 영혼들을 아버지와 마찬가지로의 미덕의 화신으로서 본다.
2. 누군가의 약점이나 결함을 볼 때, 남들을 드높이는 자는 그 결함을 좋은 염원과 협조의 느낌을 가지고 보며, 그 영혼이 미덕을 갖게 만들기 위해 힘을 기부할 것이다.
3. 남들을 드높이는 자는 모든 영혼들에게 끊임없이 자신의 보물들을 기부하는 자가 되고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공여자가 됨을 의미한다.
4. 남들을 드높이는 자는 끊임없이 자신이 모든 미덕으로 가득 차 있으며, 베감푸르(슬픔이 없는 나라)의 황제임을 경험할 것이다. 베감푸르는 슬픔이 없는 곳을 의미한다. 너희들의 생각에서조차 어떤 슬픔의 산스카라도 경험하지 않게 해라.
5. 남들을 드높이는 자들은 끊임없이 특별히 마음을 통해, 즉 생각의 힘, 말의 힘, 그들의 동반의 색깔, 그들의 관계의 사랑, 그리고 무한한 행복의 보물을 가지고, 기부하는 자가 됨을 의미한다. 그들과 연결되는 영혼은 누구나 행복의 보물로 가득 차서 돌아가야 한다. 그들은 그런 끊임없는 기부자들일 것이다. 그들은 마음과 연결을 통해 특정하게 기부하는 자들이 아닐 것이다. 즉, 그들은 특정한 영혼들을 위해서만 기부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모든 이를 위한 대 기부자일 것이다. 남들을 드높이는 자들은 끊임없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들은 상대방에게서 뭔가를 받아야만 주고 싶은 욕망을 갖지는 않을 것이다. 그들은 결코 상대방이 뭔가를 해야 나도 할 거라는 생각조차 갖지 않을 것이다: “저 사람이 변하면 나도 변하겠다. 저 사람이 약간 변해야 되고, 그러면 나도 약간 변하겠다. 저 영혼이 한 가지에 자신을 변화시켜야 하고, 그러면 나는 열 가지를 변화시키겠다.” 그런 느낌을 갖는 자들은 남들을 드높이는 자가 될 수 없다. 그들은 대 기부자가 되는 대신 끊임없이 거래를 하는 사업가가 된다. “저 사람이 이만큼 주면 내가 이만큼 주겠다.” “내가 끊임없이 머리를 숙여야 하나? 내가 끊임없이 주어야 하나? 얼마나 오래 동안,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해야 하나?” 이런 것들은 주는 자의 생각일 수 없다. 많은 다른 영혼들이 자신의 약점에 영향 받고 어떤 외적인 통제 하에 있거나, 자신의 산스카라와 성질에 영향 받거나, 물질 시설에 영향 받을 때, 그런 식으로 영향 받는 영혼들, 즉 그 때에 거지인 - “거지란 무력한 자를 의미한다” - 영혼들, 그들은 모든 힘의 보물이 텅 비어 있는 것이다.
6. 대 기부자는 거지에게서 단 일 뼉이사라도 받을 욕망을 전혀 가질 수 없다. “만일 이 사람이 변하면, 만일 이 사람이 이걸 하면, 만일 이 사람이 협조하면, 또는 앞으로 발전하면..”. 영향 받고, 무력하고, 거지인 영혼들에게서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거나 협조를 기대할 수 있느냐? 먼저 뭔가를 받고, 그런 다음에 주는 것 - 그것은 남들을 드높이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

7. 남들을 드높이는 자란 거지 영혼들이 풍요로워지게 만드는 자, 남들을 모욕하는 자들에게 자비심을 갖는 자, 자신을 모욕하는 자들마저 포용하는 자가 됨을 뜻한다. 남들을 드높이려는 순수한 느낌을 가진 자들은, 그들의 사랑, 힘, 다정한 말, 그리고 열의와 열성의 협조를 가지고 낙심한 영혼들을 강력하게 만든다. 즉, 그들은 거지 영혼들을 황제로 만든다.

8. 남들을 드높이는 자들은 트리칼다르시이기 때문에 그들 앞에 완전하고, 협조적인 영혼들을 둔다. 모든 영혼들의 약점들을 식별하면서도 그들은 그들 자신의 내면에 그 약점들을 훈습하지 않고, 그것들에 관해 말하지 않으며, 자신의 자비로운 형태를 가지고 그 영혼들 안에 있는 어떤 약점의 가시라도 끝낸다. 그들은 가시들을 꽃으로 만들어 가시들을 바꾼다. 이런 식으로 남들을 드높이는 자들은 충족감의 보석처럼 끊임없이 만족할 것이며, 또한 다른 모든 이들을 만족시킬 것이다. 놀라운 것은 그들은 희망을 잃어버린 자들 안에 희망이 생기게 한다는 것이다.

9. 다른 모든 이들에게 낙심을 준 사람,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에 대해 그들은 희망의 등불을 밝힐 것이다. 너희들의 살아 있지 않은 상들이 지금도 여전히 많은 영혼들의 일시적인 소망을 이루어주고 있으니, 그렇다면, 살아 있는 형태 안에서, 만일 가족 중의 어떤 협조적인 형제나 자매가 오해나 유지한 고집 때문에 뭔가 일시적인 것을 영구적인 성취로 여기거나 일시적인 명성, 존경, 명예 또는 어떤 일시적인 성취에 대한 욕망을 가질 때, 남들을 존중해 주고 자기 자신은 겸손해지는 것이 남들을 드높이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주는 것은 영구적으로 받는 것이다. 예를 들어 무지한 아이는 해로울 수도 있는 뭔가를 장난감으로 여길 것이고, 따라서 너희들은 그에게 뭔가 다른 것을 주어서 그 아이가 그것을 놓아버리게 해야 한다. 고집을 통해서는 영구적으로 해가 있을 것이다. 그럴 때, 이해가 부족한 영혼들은 뭔가 일시적인 성취를, 즉 영구적으로 해로운 뭔가를 그들에게 유익이 되는 것으로 여길 것이다. 그런 영혼들을 억지로 그런 것들에서 벗어나게 하거나 그런 것들에서 그들을 끌어내면 그들의 노력하는 삶은 끝날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먼저 뭔가를 주고, 그런 다음 그들을 영구적으로 자유롭게 해주어라. 너희가 이런 식으로 지혜로우면 일시적인 성취를 원하지만 아무런 이해가 없는 거지 영혼이 자동적으로 이해하고서 지각 있게 될 수 있을 것이다. 그 영혼 스스로가 그것이 일시적인 시설임을 이해할 것이다. 아무런 이해를 갖지 않은 영혼들조차 드높여주는 자가 되어라. 이런 식으로 남들을 드높이는 자들은 자동적으로 그들 자신을 드높이는 자가 된다. 남들에게 준다는 것은 너희 자신이 자동적으로 뭔가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 대 기부자는 자동적으로 모든 권리를 받는다. 너희들은 남들을 드높이는 자가 되는 것의 의미를 알겠느냐? 이런 식으로 남들을 드높이는 자들만이 모든 영혼들의 마음으로부터 축복을 받을 권리를 차지한다. 이런 식으로 남들을 드높이는 자들은 끊임없이 모든 영혼들에 의해 칭송의 꽃 세례를 받는다. 알겠느냐? 앗차.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끊임없이 남들을 드높이는 자들에게, 자아와 남들에게 끊임없이 좋은 염원과 고귀한 느낌을 갖는 자들에게, 끝없는 보물의 주인인 자들에게, 끊임없는 기부자들에게, 낙심한 자들을 강력하게 만드는 자들에게, 거지들을 영구히 황제로 만드는 자들에게, 그런 고귀한 영혼들에게, 밥다다의 사랑과 기억과 나마스테.

밥다다와 다디들의 만남:

밥다다는 마지막을 처음과 같게 만드는 자들의 그룹을 원한다; 그는 그런 만능의 배우들과 남들을 드높이는 자들의 그룹을 원한다. 너희들은 각각의 특별한 과업을 위해 그룹을 만든다. 따라서 이번에는 남들을 드높이는 영혼들, 거지 주는 공여자들의 그룹이 필요하다. 왕은 공여자다; 오늘날의 왕들은 그렇지 않다. 가득 차 있고 완전한 왕들은 끊임없이 그들의 백성들에게 주는 자들이다. 만일 왕이 자기 백성들에게서 받는다면, 백성들이 왕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득 차 있고 완전한 왕들은 결코 어떤 것도 취하지 않는다; 그들은 주는 자들이다. 완전한 왕의 손은 결코 받는 자의 손이 아니라 주는 자의 손일 것이다. 천국의 세계 황제가 그의 백성들에게서 뭐라도 받겠느냐? 만일 백성들 스스로가 가득 차 있다면 세계 황제는 어떠하겠느냐? 너희들은 미래에 공여자의 역할을 해야 하므로 지금 공여자의 산스카라로 너희 자신을 채워야 한다. 오직 너희 자신이 뭔가 구원을 받은 후에만 남들에게 구원을 준다는 것은 결코 생각조차 하지 말아라. 이것은 거지에서 왕자로 되는 것으로 알려진 것이다. 뭔가 받으려는 욕망을 가진 자가 되지 말아라. 이 일시적인 욕망에 대해 거지가 되어라. 일시적인 시설들을 받아들

이는데 있어서 거지가 되어라. 오직 그런 거지들만이 완전함의 이미지다: 한편으로 거지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가득 차 있다. 지금 “거지에서 왕자로”의 역할을 실질적으로 하는 영혼들은 끊임없이 버린 자이며 끊임없이 고귀한 행운을 가진 자라 일컬어진다. 버림을 통해 영구적인 행운이 자동적으로 창조된다: 너희가 뭔가를 버리는 순간 너희의 행운의 선이 그어진다. 따라서, 이제, 남들을 드높이는 그런, 자아를 위한 욕망은 알지조차 못하고 끊임없는 기부자인 자들의 그룹이 필요하다. 너희들은 아버지를 보았다: 그는 그 자신의 시간조차 봉사를 위해 내주었다. 그 자신은 겸손해졌고, 자녀들을 존중해주었다. “자녀들이 첫째다.” 이름은 자녀들의 것이었고, 일은 그 자신의 것이었다. 그는 심지어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조차 이름을 얻지 않았다. 그는 이름을 얻는데 있어서조차 남들을 드높였다. 그는 그 자신의 이름을 얻지 않고 남들의 이름을 빛냈다. 그는 끊임없이 그 자신을 봉사자로 두었다. 이것은 남들을 드높이는 것이다. 그는 자녀들을 주인으로 하고, 그 자신은 하인으로 두었다. 그는 또한 주인으로서의 존중을 주었다; 그는 그런 명예를 주었고, 또한 그의 이름을 버렸다. 그는 결코 그 자신의 이름을 빛내지 않았다 - “나의 자녀들.” 아버지는 그의 이름과 존경과 명예를 버렸다; 그는 남들을 드높였고, 자녀들의 행복 속에 그 자신의 행복이 있는 것으로 여겼으며, 아버지를 잊음으로써 자녀들이 경험했던 슬픔을 그 자신의 슬픔으로 여겼다. 그는 자녀들의 실수를 그 자신의 실수로 여겼고, 끊임없이 자녀들을 올바르게 만들었다. 이것을 남들을 드높이는 것이라 한다.

요즘에는 남들의 약점들을 끝내고 계속 힘을 줄, 그런 그룹이 필요하다. 만일 모든 이가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너희들 모두의 시간이 절약될 것이고, 사건과 상황들은 끝날 것이며, 그러면 끊임없이 영적인 사랑이 넘치는 집회가 있게 될 것이다. 그러면 세계에 유익을 주는 과업의 속도가 빨라질 것이다. 지금 너희들은 참으로 많은 계획들을 세워야 한다. 어떤 계획들은 과업이 실행되기도 전에 없어진다; 그것은 마치 때때로 어떤 폭죽에 불이 붙지 않아서 그저 그렇게 꺼져버리는 것과 같다. 그러나 세계에 유익을 주려는 생각, 즉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한다는 강력한 생각이 있었을 때, 그러면 곳곳에서 그것이 행해졌고, 온 사방에서 큰 소리가 들렸다. 너희들은 사카르 바바를 보았다: 그는 지식의 권위자인 것과 함께 또한 경험의 화신으로서의 권위도 갖고 있었다. 이 권위 때문에 그의 모든 말에는 지식과 함께 경험이 들어 있었다. 따라서 그는 이중의 권위를 가졌다. 그와 마찬가지로, 모든 자녀들이 이중의 권위를 가지고 말해야 한다. 그러면 경험의 화살과 지식의 권위의 화살이 일초 만에 그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너희의 말과 형태가 둘 다 그런 권위를 가져야 하고, 그러면 쉽게 성공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지식은 아주 좋고, 매우 고귀하지만 그것을 훈습하기가 어렵다’고 말할 것이다. 따라서 다르나의 화신, 다르나의 형태가 실질적으로 보여야 한다. 그러면 실질적인 예를 들기가 쉬워진다. 따라서 이중의 권위를 가진 자들, 도취된 거지들로 알려진 자들의 그룹이 필요하다. 아무런 욕망이 없게 해라. 앓차. 움 산티.

그룹과의 미팅:

1.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가치가 있게 되는 쉬운 길은 초연해지는 것이다.

연꽃이 끊임없이 초연하면서도 모든 이에게 사랑 받는 것처럼, 너희들도 끊임없이 연꽃처럼 초연하게 지내느냐? 가족과 함께 살면서, 세상의 분위기 속에 살면서, 그것에서 초연해져라. 초연한 자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가치가 있게 된다; 사랑이 가득할 정도로 초연해져라. 초연해지는 것 - 지극히 초연하고, 따라서 지극히 사랑이 넘치는 것 - 을 바탕으로 번호가 만들어진다.

2. 너희의 숭배 받을 가치 있는 형태를 의식함으로써 자동적으로 봉사해라.

지난 사이클의 너희의 기념물을 보고 그에 관해 들을 때, 너희들은 노래되고 있는 것이 너희들에 대한 칭송이라는 도취감을 끊임없이 갖느냐? 기념물인 어떤 장소에 갈 때 너희들은 그것이 너희들을 기리는 것이라는 도취감을 갖느냐? 너희가 살아 있는 형태 안에서 너희의 살아 있지 않은 기념물들을 본다는 것은 경이로운 일이다. 한편에는 살아 있지 않은 상들이 있고, 다른 한편에는 너희가 은밀한 방식으로 살아 있는 형태에 있다. 신봉자들은 대단히 많이 외쳐 부른다; 따라서, 너희 자신을 숭배 받을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길 때, 너희들은 신봉자들에 대해 자비심을 가질 것이다. 신봉자들은 거지들인 반면에 너희들은 가득 차 있다. 따라서 너희들은 신봉자들을 볼 때 자비를 느끼느냐? 너희들은 신봉자들에게 그들의 신봉의 결실을 주는 도구가 되려는 욕망을 갖느냐? 너희들은 끊임없이 봉사에 대한 열의와 열성을 갖느냐? 봉사를 통해 많은 이들이 유익을 얻고, 그것은 또한 미래를 위해 축적된다. 너희들은 단연

코 모든 영혼들에게 한 방울을 주어야 한다. 어느 누구도 빈 손으로 돌려보내지 말아라. 너희의 숭배 받을 가치 있는 형태를 의식 속에 간직해라. 그러면 의식적으로 원하지 않아도 끊임없이 봉사에 몰두하고 있게 될 것이다.

3. 왕족다움, 즉 사랑 받는 자녀라는 징표는 육체의식의 진흙에서 떨어지는 것이다.

수백만 배로 복 있는 영혼들은 끊임없이 행복의 그네를 탄다. 그들의 지각의 발은 결코 밑으로 내려오지 않는다. 특별히 사랑 받고, 오래 동안 잃었다가 이제 찾은 자녀들은 언제나 품 안에 있고, 그들의 발을 땅에 내려놓지 않는다; 그들은 카펫 위에 발을 둔다. 너희들 수백만 배로 복 있고, 오래 동안 잃었다가 이제 찾은 자녀들의 지각의 발도 또한 언제나 육체의식과 물질세계에 대한 의식을 일체 초월해 있어야 한다. 밥다다가 너희들을 진흙 위로 들어 올려 옥좌에 앉혔는데, 왜 너희들은 옥좌를 버리고 진흙 속으로 들어가느냐? 육체의식 안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진흙을 가지고 노는 것을 의미한다. 합류 시대는 상승을 위한 시대다; 하강할 때는 이제 지났다. 이제 위로 올라갈 약간의 시간이 있다. 따라서 왜 너희가 밑으로 내려오느냐? 끊임없이 저 위에 있어라. 앗차. 음 샐티.

축 복: 끊임없이 아버지를 곁에 간직함으로써 자아의 종교인 순수성을 쉽게 지키는 전능한 권위자 마스터가 되어라.

순수성은 영혼인 자아의 종교인 반면에 불순함은 외적인 종교다. 너희들은 자신의 본래의 종교에 믿음을 갖고 있으니 외적인 종교가 너희들을 흔들 수 없다. 아버지가 무엇이든, 어떠한, 만일 너희가 그를 정확하게 알아보고 그를 곁에 둔다면, 자아의 본래의 종교를 택하기가 매우 쉽다. 왜냐하면 너희의 동반자는 전능한 권위자이기 때문이다. 불순함은 전능한 권위자의 자녀들인 전능한 권위자 마스터 앞에는 올 수 없다. 만일 마야가 아직도 너희의 생각에 들어온다면, 단연코 어떤 문이 열려 있는 것이다. 즉 너희의 믿음에 뭔가가 부족한 것이다.

슬로건: 트리칼다르시인 자는 시간의 한 측면의 시선을 가지고 어떤 것을 보지 않고, 모든 것에 유익이 있다고 여긴다.

*** 음 샐티 O M S H A N T I ***